

해외산업간호정보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대구동산의료원
보건관리대행반 간호사
김은경

필자는 병원직원 국외 연수자로 선정되어 지난 10월 1일~5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먼저 일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은 총면적 377,801 km²로 캘리포니아보다 조금 작고 영국과 이탈리아보다 약간 크다. 국토

의 72%는 산지이며 농지는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 오늘날에도 빈번히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활동 또한 활발한데 산지의 대부분이 화산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많은 온천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일본은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인구의 99.5%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1만 5천명 정도의 아이누 원주민이 남아있으며, 한국인이 약 70만명, 중국인이 약 48만명 살고 있다. 그 외에 극소수의 동양인을 비롯하여 서양인도 살고 있다.

산업은 큰 도시에 치중되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심하다. 경제대국 일본의 수도 도쿄에 약 1,0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있다.

기후는 북반구 온대 기후권에 자리하고 있어 춘하추동 4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남부제도 및 하와이 군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남부지방과 비슷하나 겨

울이 비교적 짧고 여름이 긴 편이다. 그러나 국토가 남북 3,800km에 걸쳐있다는 것과 섬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후차이가 심한편이다.

종교가 단일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종교로는 일본 특유의 신도와 불교를 많이 믿고 기독교, 카톨릭, 그리스정교와 그밖의 종교도 있다. 일본 고유의 애니미즘 종교인 신도는 천황이 수장이다. 한편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도입된 불교는 신도와 결합하여 대중 종교로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첫째날(10월1일), 대구를 출발하여 오사카(大阪)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4박5일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오사카는 도쿄에 이은 일본 제2의 도시로서 부 일본의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이다.

제일 먼저 ATC(아시아 태평양 무역센터), 비즈니스 파크, 크리스탈 타워, twin 21을 방문하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근에 건축된 크리스탈 타워 내 건물은 조명, 냉난방, 채광, 브라인드 등이 전산화되어 있어 리모콘 하나로 모든 작동이 가능하였고 직원들은 개인 빌딩카드로 건물내의 자판기, 식당 스포츠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오사카성이다. 오사카성은 1586년 천하통일을 이룩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세운 것으로 현재 크기의 5배 크기의 규모로 일본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소실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재건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소실 재건되었으며 오사카성 주위는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필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새롭게 단장하는 중이어서 내부까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날(10월2일) 오사카 Matsussita(마쓰시다) 기술관, 역사관을 관람하였다. 우리에게 National, Panasonic 상품명으로 알려진 Matsussita의 기술관과 역사관은 103년의 역사화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업당시 생산제품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진열하였으며 VTR화면에 일어, 영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어서 관람객에게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오사카의 동쪽 41km의 지점에 있는 교토(京都)로 이동하여 니시진회관, 니조성, 금각사를 관광한 후 교토 공장보건회를 방문하였다.

교토 공장보건회(Kyoto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는 우리나라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연결되어 학술 교류 및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었다.

특히 필자는 현재 산업보건 간호사로서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교토 공장보건회의 방문은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먼저 교토 공장보건회를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940년 11개 회사 6,500명 중소기업의 공동보건시설을 위해 발족되었다. 주로 결핵 조기발견 및 건강유지증진을 위해 발족되었다. 1995년 현재 건강진단과 외래 진료, 및 환경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진단은 세부적으로 정기건강진단, 성인병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학교·지역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진단에서 유소전자로 발견시 교토 공장보건회에 내원하여 추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회사 부담으로 실시되었으며 진단법에서 CT, MRI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실제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적은 액수였다. 회사에서 검진실시 후 지속적으로 추후관리를 내원실시하여 외래 진료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건강증진 개념이 우리는 현재 도입되는 단계이지만 일본은 벌써 적용되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장 보건회 경우 THP(Total Health Promotion Plan)로 기초체력증진, 성인병예방 개선, 비만, 운동 부족한 근로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공개되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산업보건에

관한 장비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의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셋째날(10월3일), 우리나라의 경주에 해당하는 역사적 의의와 전통을 자랑하는 옛 일본 유적의 대표인 교토를 관광하였다. 이층과 풍국신사와 평화신궁 및 MK taxi를 방문하였다.

MK taxi 회사는 1960

년대에 10대의 택시에 사원 24명

으로 시작, 현재 사원 1,100여명에 456대의 택시를 가진 제일 교포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친절, 봉사, 회생을 이념으로 모든 고객에게 친절을 다하는 회사이



넷째날 신애병원에서 근무, 간호사와 함께. (필자는 오른쪽에서 두번째)

다. 너무나 잘 알려진 회사에서 두 팀의 한국 연수단을 MK taxi 회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서울 소재 은행 연수단이였다. 친절의 대명사로 알려진 MK taxi의 부회님의 강연을 듣고, 일본에서 성공한 한국인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수단 일행은 신간센을 타고 도쿄(東京)로 이동하였다. 도쿄(東京)은 현재 일본인의 행동과 생활방식을 단시일에 체험할 수 있는 일본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로, 현대 도시 문명과 전통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천황이 사는 고쿄(皇居)를 방문하였는데, 예쁜 자갈이 깔려있고 소나무가 울창한 넓은 광장이 고쿄의 앞에있다. 도쿄(東京)의 중심가에서 250에이커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 둘레는 돌담, 니쥬바시(二重橋), 사쿠라다몬(樓田門) 등이 있어 직장인과 젊은이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었다.

넷째날(10월4일), 전자제품의 최대거리인 아키하바라 관광, 동경시청 방문, 신에병원을 방문하였다. 신에병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었으며 치매노인 및 호스피스 전문병원이었다. 병원 안에는 집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병원측이 임종을 맞는 환자를 배려하는 깊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죽음을 기다린다는 공포감과 불안을 서로 함께 나누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임종의 순간까지 한 인격으로 존중하여 아픔을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방, 목욕실, 보호자 전용실 라운지에 마련된 미니 소공원 등이 기존의 한국 병원 시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병원의 외래 대기실은 음악 콘서트나 건강 강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리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독주회가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의 친절 봉사 정신과 주인의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다섯째날(10월5일), 아사쿠사 관음사 관광을 한 후 도쿄(東京)을 출발하여 대구로 향하였다. 4박5일의 짧고도 긴 연수기간이었지만 필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단순히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곳이, 깨끗하고 정리된 도시 환경과 시민의 친절과, 자기 것에 대

한 확실한 주체사상 등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 일본에 대한 식민사관에 관한 비판과 더불어,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으로의 위치를 있게 한 일본의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필자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있게 한 좋은 기회였다 다음 연수를 기대하며 즐인다.



신에병원직원과 동산의료원 연수생과 함께.(필자는 오른쪽 첫번째)